

| 피해현장 · 호남지역 폭설피해 현장을 가다 |

피해지역 참담한 연실 반영



지난 05년 12월에 내린 폭설로 인해 전라도 지역 양계농가에 큰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전국적으로 양계를 포함해 3천 5백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본회 최준구 회장은 지난 1월 10~11일 이틀에 걸쳐 호남지역을 방문, 피해현장을 돌아보았다.

이날 최준구 회장은 광주·전남 도지회를 방문하여 양계농가 회원들과 함께 폭설피해 대책 논의를 했다. 큰 피해가 말해 주듯이 호남 양계인들이 다수 모여 피해상황과 대책논의를 위해 광주·전남도지회에 모였다. 방문 일정으로 전남지역은 윤한성 지회장과 김희동 상무가 동행했으며 전북지역은 박옥룡 지회장과 이희환 상무가 동행해 실질적인 피해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최준구 회장은 방문 농가마다 격려금을 전달하며 위로의 뜻을 전하였다. 본고는 방문한 4개 농장에 대해 피해실태를 간접적으로 파악해 보았다.



하늘농장

전남 나주 소재의 하늘농장(대표 윤한성)은 신축사 1동(12m×120m)이 전파됐으며 피해규모는 300평으로 조사됐다. 신축중인 계사 1개동이 축사 및 케이지 등 내부시설이 완전 파괴됐으며 피해 직후 곧 바로 복구를 시작해 현재 약 80% 진척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농장 내 기존 계사는 이상이 없었다.



백야농장

전남 함평군 소재의 백야농장(대표 김성국)은 1/11일 H빔 계사 1동(275평)이 전파되었다. 피해규모는 성계 32주령 15,000수로 나타났다. 현재 복구사항으로 매몰시켜야 하는 보상 규정에 따라 피해복구가 늦어지고 있으며 크레인 2대를 이용, 철골 구조물을 제거 중에 있었다. 계사와 계사사이 23년된 마다스코 나무로 인해 작업이 지연되고 있었다. 철 구조물이 제거되는 즉시 계사를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세계농장

전북 고창군 소재의 세계농장(대표 최광일)은 산란 계사 4동, 육성사 1동이 모두 완파됐으며 성계 40,000수가 폐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살림집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무너졌으며 피해규모가 너무 커 복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서곡농장

전북 정읍시 소재의 서곡농장(대표 박근식)은 육계사 5개동 완파, 2개동 반파로 육계사 420평으로 피해규모가 나타났다.

피해면적이 총 계사면적에 1/4에 불과하여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금 일체를 받을 수 없는 상황(기존 1/3 이상일 경우 복구비 지원)으로 피해 복구를 전혀 하지 못한 상태였다.